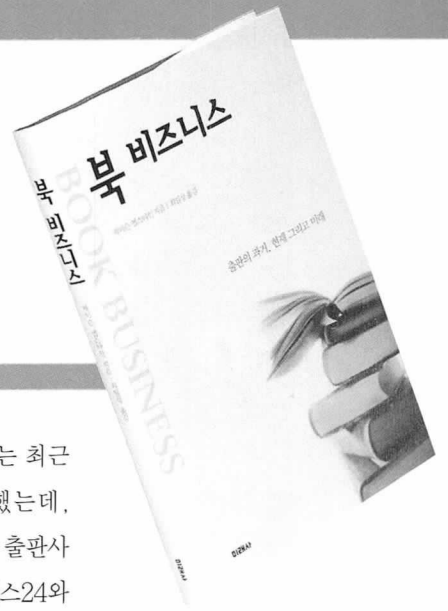


《북 비즈니스》

오랜 체험 바탕으로 미래출판의 혁명적 변화 예견해

강병국 | 에스24 도서사업본부장



제이슨 엠스타인 지음 | 최일성 옮김
미래사/A5신/176면/10,000원

“POD방식의 출판은 종래의 출판과 유통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출판의 일정영역을 차지해 상호보완하며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에서 POD방식으로 제작한 책을 지역에 배송해 주는 방식이 훨씬 경제적이고 사업으로서의 타당성도 있어 보인다.”

《북 비즈니스》는 번역·출간되기 전부터 출판계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던 책이다. 엠스타인은 50년 가까이 미국의 대표적인 편집인으로 활동해왔다. 요즘처럼 인터넷 혁명, 전자책 출현 등으로 ‘책의 종말’이 운위되는 시점에서 그는 ‘출판의 새로운 황금시대론’을 전개해 국제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POD형 출판이 미래 출판 주도할 것이라 예측해

지은이가 보기에 오늘날 미국 출판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독립 서점들이 점점 사라지고 반즈앤노블이나 보더스 같은 대형서점체인 위주로 소매서점 시장이 재편되면서 생겨났다. 대형서점체인들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재고회전율이 높은 베스트셀러 위주의 판매에 매달리게 되면서 가치있는 양서들이 시장에서 설자리를 잃게 돼 출판의 생명인 다양성이 소멸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출판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백리스트’(Backlist)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핵심은 앞으로 POD형 출판방식이 종래의 출판방식을 대체할 것이란 점이다. 더욱이 POD기계가 오늘날의 현금자동지급기(ATM)처럼 동네 곳곳에 보급됨에 따라 유통이 아예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까지 한다. 지은이는 이런 새로운 출판과 유통시스템이 5백년 전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에 버금가는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은이의 이런 구상은 POD형 출판의 본질과 그 잠재력을 정확히 꿰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나친 점도 없지 않다. 그의 구상이 너무 지나치게 확장되는 바람에 그 주장을 접한 이들에게 POD의 긍정적인 변화를 너무 먼 미래의 일쯤으로 치부해버리게 할 위험이 있다. 우리에게 POD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인터넷서점 에스24는 최근 POD서비스를 시작했는데, POD형 출판을 원하는 출판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에스24와 같이 POD방식의 인쇄 및 제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에게 책의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 출판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책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오프라인 도소매 유통망을 통해 유통시킬 수도 있고, 일부는 인터넷서점을 통해 유통시킬 수도 있다. 인터넷서점을 통해 유통시킬 경우는 아예 재고가 ‘0’인 상태로 도서데이터베이스만 등록해 두고(또는 책의 한 장 정도를 E-북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다) 독자의 주문이 있는 경우 한 부만 제작해 배송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POD방식의 출판은 종래의 출판과 유통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출판의 일정영역을 차지해 상호보완하며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인다. 또한 지은이의 구상처럼 POD기계를 동네 곳곳마다 설치하기보다는 중앙에서 POD방식으로 제작한 책을 지역에 배송해 주는 방식이 훨씬 경제적이고 사업으로서의 타당성도 있어 보인다.

국내 출판계의 절대명제와 배치되는 주장도 있어

지은이가 책의 첫머리를 “도서출판은 본질적으로 가내공업이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오직 직관으로만 그 결과를 알 수밖에 없는 작업”(21쪽)이 출판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 출판계에서 출판사의 대형화·기업화가 절대명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기획과 마케팅을 입버릇처럼 말해온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50년 가까이 편집자로 활약해온 지은이가 보기에 출판사의 대형화란 전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그는 대형서점체인의 등장에 따른 폐해를 오늘날 미국의 출판계를 병들게 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국내 출판 유통의 열악한 구조 때문에 대형서점체인의 등장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해왔던 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

강병국씨는 해외저작권중개회사 KCC, 도서출판 김영사, 인터넷서점 크리센스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인터넷서점 에스24에서 도서사업본부장을 맡으면서 주문형 출판인 POD서비스를 시작했다.